

“해외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해법 찾는다”

- 법무부 · 대한상의 · 세계은행, 최신 국제 규제 동향과 실무 전략 제시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 중동 법률 리스크, 미(美) 관세 및 무역정책 변화 등 해법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5. 14.(목)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신 해외 법률 이슈와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각국의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2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참고해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FCPA)의 주요 내용과 최근 집행 동향, ▲미국의 관세정책 및 무역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 등 최신 국제 법무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 및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면 훗날 2026년은 ‘세계 경제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법무부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통상 및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무역환경에 대처함과 동시에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행사 상세 내용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2-2110-3671)
	담당자	검 사	박제연 (02-2110-3659)



[붙임] 행사 상세 내용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법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관세·무역정책, 중동 리스크 등 해외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법률통상 이슈와 실무 대응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1:1 해외진출 법률상담도 제공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행사 개요

- | 일 시 | 세미나 - 2026. 5. 14(목) 14:00 - 16:20
상담회 - 2026. 5. 15(금) 14:00 - 18:00
- | 장 소 | 세미나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2층)
상담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2층)
- | 주 최 |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

세부프로그램

주 제	연 사
1일차	
14:00-14:10 개 회 사	주최 기관
14:10-14:40 ① 우리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세계은행 (리사 밀러 청렴국장, 조지훈 분석가)
14:40-15:10 ②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집행동향 및 대응전략	감·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 이강국 변호사)
15:10-15:20 Coffee Break	
15:20-15:50 ③ 해외 관세 및 무역 정책 변화와 실무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15:50-16:20 ④ 중동 상황 관련 법률 리스크 대응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
2일차	
14:00-18:00 1:1 해외진출 법률상담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